

이비자는 섬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비자 타운 마리아
출처 : <https://pixabay.com>



달트 빌라에서 바라본 이비자 섬의 구 시가지
출처 : <https://pixabay.com>

이비자 섬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화려한 클럽과 풀 파티 등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화려한 밤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비자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러한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 섬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 또한 차츰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비자가 위치한 발레아레스 제도는 술에 취한 파티 관광과 거리를 두고자 지역 정당인 포데모스(Podemos)가 나서 난폭한 취객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는 캠페인에 나섰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섬 주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2년 1월 스페인 정부는 모든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대책과 이어지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비자, 마요르카, 메노르카, 포르멘테라를 아우르는 발레아레스 제도 등이 세계 최초로 공존하는 여행지(Circular Destination)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 업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해산물의 원산지 추적, 멸종위기종 사용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의 최소화를 목표로 석유 난방 대신 천연가스와 전기 등의 대체재 사용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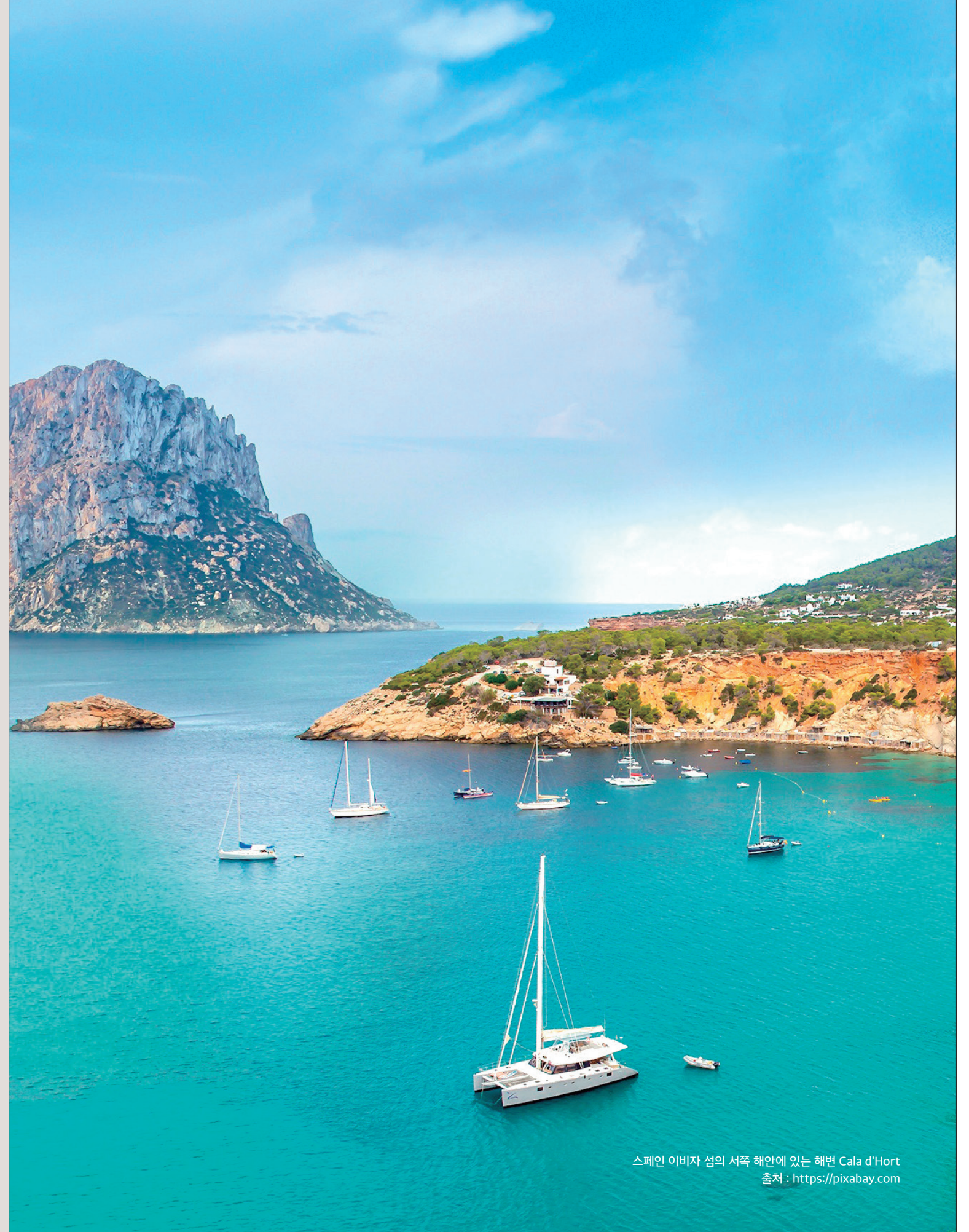
파티와 밤 문화의 여행지라는 제한된 섬 관광의 이미지 대신 새로운 모습으로 이비자의 태양은 다시금 뜨거울 예정이다. 공유 경제와, 재활용, 클린 에너지를 통해 폐기물, 오염, 기후 변화를 차단하는 녹색 관광(Green Tourism) 모델을 발판삼아 이비자는 지속가능한 섬 관광의 주체로써, 전 세계의 관광객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비자 섬

- 언어** → 스페인어, 영어
- 시차** → 우리나라 대비 8시간 느림
- 날씨** → 연평균 기온 섭씨 18.3 연중 온화함
- 비자** → 90일 무비자

추천 여행 시기

- 시기** → 5월 말 ~ 10월 초



스페인 이비자 섬의 서쪽 해안에 있는 해변 Cala d'Hort
출처 : <https://pixabay.com>